

2022년 7-1

KIET 경제·산업동향

2022년 7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회예산정책처(2022년 6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연준 금리 인상, 일본 금융완화 유지, 중국 금리 동결

- 미국은 5월 실물지표들의 부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
- 일본은 4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 등 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유로존은 4월 실물지표들의 부진에도 역내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응하여 유럽중앙은행이 하반기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을 예고
- 중국은 5월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도시들의 봉쇄조치 완화 속에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5개월 연속 동결
- 달러화는 6월중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 이후, 7월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美 국채금리 상승 재개 등으로 강세 지속
- 유가는 6월초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 이후, 美 원유재고 증가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강세 등으로 100달러대로 하락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8%, 소비 감소·투자 증가

-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소폭이나마 전월비 증가세(0.1%)로 전환하고,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연속 증가(1.1%)한 데 힘입어 소폭 증가(0.8%)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0.1%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동반 증가하면서 13.0% 증가

□ 금 용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소폭 증가, 7월 초순(7.1~7.11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1,300원 돌파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의 동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중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하고, 7월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6월 글로벌 금융긴축 강화 우려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7월 들어서도 1,3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 기타운송장비 등 주력 업종들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7.8% 증가
 - 제조업ICT는 두 자릿수 증가율, 중공업과 경공업도 생산 증가세가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7.5%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6.9%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9% 감소

□ 고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3.4% 증가

-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동반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3.2% → 3.4%)

□ 수출입 : 6월 수출 +5.4%, 수입 +19.4%, 무역적자 약 25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4% 증가한 577억 달러,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석유제품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 등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 전환(-0.8%)한 데 이어,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20개월 만에 감소(-8.3%)

1. 해외경제

□ 미국 : 5월 실물지표 부진, 인플레 심화 속에 연준 75bp 금리 인상

○ 지난 5월 생산 둔화,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과 체감지표들의 혼조 속에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 대응을 위하여 상당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

- 산업생산은 광업(전월비 1.3%)과 유틸리티(1.0%)의 동반 증가에도 제조업(-0.1%)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부품 판매(-3.5%)가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큰 폭 감소하여 5개월 만에 감소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하락에도 신규수주와 생산, 재고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와 미래 기대지수가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특히 제조업에서 현저히 축소(4월 6.1만명 → 5월 1.8만명)된 모습이고,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시현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전년동월비 8.6%)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3.4	5.7	2.3 (4.9)	6.9 (5.5)	-1.5 (3.5)				
산업생산 (IT생산)	-7.2 (7.1)	5.5 (11.1)	0.8 (-0.9)	1.0 (2.8)	1.7 (1.9)	1.0 (2.0)	0.5 (1.0)	1.4 (-1.0)	0.2 (0.7)
내구재수주	-4.5	15.6	2.8	2.3	4.0	-0.7	0.7	0.4	0.8
소매판매	0.6	19.7	0.1	2.3	3.3	1.7	1.2	0.7	-0.3
소비자물가	1.2	4.7	1.6	1.9	2.2	0.8	1.2	0.3	1.0
실업률(%)	8.1	5.4	5.1	4.2	3.8	3.8	3.6	3.6	3.6
무역수지(10억US\$)	-654.0	-845.0	-219.1	-225.0	-283.8	-88.1	-107.7	-86.7	-85.5
ISM 제조업지수 ¹⁾	52.5	60.6	60.0	60.1	57.8	58.6	57.1	55.4	56.1
소비자신뢰지수 ²⁾	100.9	112.0	116.7	112.9	108.1	105.7	107.6	108.6	106.4
경기선행지수 ³⁾	108.0	115.6	117.2	118.7	119.1	119.4	119.3	118.8	118.3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4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 제로금리 등 현 금융완화 기조 유지

- 4월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한 반면, 수주가 큰 폭 확대되고, 소비도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 日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확대 등 2년여 만에 관광 재개를 허용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제로 금리 등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긴축 기조와는 차별적 행보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4.5	1.7	-0.8	1.0	-0.1				
광공업생산	-10.6	5.6	-1.9	0.2	0.8	-2.4	2.0	0.3	-1.5
민간기계수주	-8.6	6.1	1.1	5.1	-3.6	-2.0	-9.8	7.1	10.8
소매판매	-3.5	2.1	0.4	1.5	-0.9	-0.9	-0.9	1.7	1.0
소비자물가	0.0	-0.2	0.4	0.3	0.7	0.1	0.5	0.4	0.4
실업률(%)	2.8	2.8	2.8	2.7	2.7	2.8	2.7	2.6	2.5
무역수지(10억엔)	388	-1,669	-856	-1,621	-3,291	-2,199	-677	-414	-839
경기선행지수 ¹⁾	88.4	101.5	101.7	101.9	100.8	101.3	100.3	100.8	102.9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5월 실물지표 반등, 인민은행 기준금리(LPR) 5개월 연속 동결

- 지난 5월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회복하고,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투자는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가 지속. 주요 도시들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 기대감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대출우대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8.1	4.9	4.0	4.8				
산업생산	2.8	9.6	4.9	3.9	6.3	7.5	5.0	-2.9	0.7
고정투자(누계기준)	2.9	4.9	7.3	4.9	9.3	12.2	9.3	6.8	6.2
소매판매	-3.9	12.5	5.1	3.5	1.6	6.7	-3.5	-11.1	6.7
소비자물가	2.5	0.9	0.8	1.8	1.1	0.9	1.5	2.1	2.1
수출(달러화기준)	4.0	29.7	23.9	22.8	15.0	16.3	14.6	3.9	16.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4월 실물지표 부진, 유럽중앙은행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예고

- 4월 역내 생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소비가 4개월 만에 감소하고, 무역적자 규모가 유로화 출범 이후 최대치.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예고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5	5.3	2.3	0.2	0.6				
산업생산	-7.7	7.8	-1.0	-0.2	1.0	-0.8	0.5	-1.4	0.4
소매판매	-0.9	5.1	1.2	0.5	-0.6	0.1	0.5	0.3	-1.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2.8	4.6	6.1	5.1	5.9	7.4	7.4
무역수지(10억유로)	233.6	116.7	26.2	-17.5	-39.4	-9.1	-12.5	-17.9	-31.7
경기체감지수 ¹⁾	88.3	110.8	116.8	115.7	111.7	113.0	114.2	106.5	104.9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유로 20년 만에 최저치 & 유가 하락세 심화

- 달러화는 6월중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다, 美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약세로 전환되고, 7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美 국채금리 상승 재개 등으로 특히 유로화 대비 강세 심화
- 유가는 6월초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 이후, 바이든 정부의 유류세 면제 추진과 美 원유재고 증가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하고, 7월 들어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100달러대 수준까지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1일
엔/달러	113.95	113.17	115.08	115.11	115.00	121.70	129.70	128.67	135.72	137.44
달러/유로	1.1558	1.1338	1.1370	1.1235	1.1219	1.1067	1.0545	1.0734	1.0484	1.0040
미 국채 (10년만기)	1.55	1.44	1.51	1.78	1.83	2.34	2.93	2.84	3.01	2.99
WTI유	83.6	66.2	77.0	88.2	95.7	100.3	104.7	114.7	105.8	104.1
두바이유	81.9	71.0	76.5	87.5	97.0	106.0	106.0	117.1	115.0	108.1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8%, 소비 감소·투자 증가

○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소폭이나마 전월비 증가세(0.1%)로 전환하고,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연속 증가(1.1%)한 데 힘입어 소폭 증가(0.8%)

- 광공업생산이 전자부품(전월비 -4.0%) 등에서 큰 폭 감소한 영향에도 기계장비(6.2%)와 자동차(1.8%)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1%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2.9%)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1%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0.7	4.1*	4.0* (0.2*)	4.2* (1.3*)	3.0*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8	3.7*	3.4* (0.0*)	6.2* (1.5*)	4.3* (-0.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2	9.0*	4.2* (-3.0*)	4.2* (-0.2*)	-6.2* (-3.9*)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5	-1.6*	-1.5* (-2.0*)	-1.6* (2.0*)	-5.5* (-3.9*)	-	-	-	-
전산업생산지수	-1.1	4.9	3.9 (0.9)	5.7 (1.5)	4.0* (1.3*)	4.2 (-0.3)	3.4* (1.6*)	4.4* (-0.9*)	7.1 (0.8)
광공업생산지수	-0.3	7.4	5.8 (1.0)	6.4 (1.1)	4.7* (3.8*)	6.4 (0.3)	3.7 (1.2)	3.5* (-3.3*)	7.3 (0.1)
제조업생산지수	-0.2	7.6	5.8 (0.9)	6.5 (1.3)	4.7* (3.9*)	6.2 (0.3)	3.7 (1.2)	3.6* (-3.2*)	7.8 (0.1)
서비스업생산지수	-2.0	4.4	3.9 (1.1)	5.5 (1.5)	4.1* (0.0*)	3.7 (-0.4)	3.8 (1.6)	5.0* (1.1*)	7.5 (1.1)
소매판매액지수	-0.2	5.9	5.6 (0.8)	6.4 (1.1)	2.8* (-1.1*)	1.6 (0.0)	2.1 (-0.7)	0.4* (-0.2*)	0.7* (-0.1*)
설비투자지수	5.9	9.6	6.2 (-0.8)	6.2 (-0.2)	-1.3* (0.2*)	2.4 (-5.6)	-5.4 (-2.3)	-12.1* (-7.6*)	5.1* (13.0*)
건설기성액	-2.1	-6.7	-8.1 (-1.1)	-2.9 (4.1)	-1.5* (-1.9*)	-4.0 (-7.2)	-5.0 (1.4)	-2.3* (-0.1*)	8.2* (5.9*)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5	116.9	117.6	118.7	120.7*	120.8*	120.8*	120.7*	121.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6	100.5	100.8	101.3	102.5*	102.6*	102.4*	102.1*	102.2*
선행종합지수(2015=100)	118.9	126.4	127.5	127.5	128.0*	128.0*	128.1*	128.2*	128.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8.9	101.0	101.4	100.4	99.8*	99.8*	99.6*	99.3*	99.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1.2%) 판매가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의복 등 준내구재(-1.2%) 판매가 감소하고, 의약품 등 비내구재(-0.3%) 판매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0.1%)
- 설비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장비(전월비 16.4%)와 기계류(11.9%) 투자가 동반 증가한 데 힘입어 4개월 만에 큰 폭 증가(13.0%)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특히 건축(5.8%) 공사 실적이 상당폭 증가하면서 5.9%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과 달리 상승(전월비 0.2%)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지수와 건설수주액이 하락한 반면에, 장단기금리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0.1% → 0.4%)

□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6.0% 상승

- 6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0.1%)를 제외하고, 교통(2.9%)과 음식·숙박(0.8%), 주택·수도·전기·연료(0.3%), 오락·문화(0.5%) 등 다수 부문이 상승하면서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6.0%, 1998.11월 이후 최고치)
- 5월 생산자물가는 공산품에서 전월비 상승폭이 현저히 축소(2.0% → 0.8%)된 가운데 농림수산물(2.0% → 1.5%)과 서비스(0.5% → 0.4%)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비 기준 0.5% 상승(전년동월비 9.7%, 2021.11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4/4	1/4	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0.5	2.5	3.5 (1.0)	3.8 (1.5)	5.4 (2.1)	3.6 (0.6)	3.7 (0.6)	4.1 (0.7)	4.8 (0.7)	5.4 (0.7)	6.0 (0.6)
근원물가	0.7	1.8	2.6 (0.9)	3.2 (1.2)	4.0 (1.4)	3.0 (0.5)	3.2 (0.4)	3.3 (0.2)	3.6 (0.6)	4.1 (0.7)	4.4 (0.4)
생산자물가	-0.5	6.4	9.3 (1.9)	8.8 (2.1)	-	8.9 (1.1)	8.5 (0.5)	9.0 (1.5)	9.7 (1.6)	9.7* (0.5*)	-
근원물가	-0.1	6.0*	8.4 (1.5)	8.0 (1.7)	-	8.0 (0.8)	7.9 (0.5)	8.1 (1.1)	7.9 (1.0)	7.6* (0.4*)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소폭 증가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과 시설자금 수요 등과 함께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
(22.4월 +12.1조원 → 5월 +13.1조원, 대기업 +4.3조원, 중소기업 +8.9조원)
 -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 금융지원과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발행과 투자 수요가 모두 둔화되면서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2.4월 +0.3조원 → 5월 -1.6조원)
- CP·단기사채도 다시 순상환 기조로 전환
(22.4월 +4.5조원 → 5월 -1.5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규모 감소 등으로 발행 규모가 소폭 증가
(22.4월 +3.5조원 → 5월 +0.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22.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원화대출	76.2	16.0	40.7	5.7	40.3	8.6	12.1	13.1	1,119.2
(대 기업)	27.5	2.7	2.4	-0.8	10.1	0.9	4.4	4.3	193.6
(중소기업)	48.6	13.3	38.3	6.5	30.3	7.7	7.8	8.9	925.5
<개인사업자>	26.1	7.7	16.2	2.3	10.3	2.9	2.6	2.0	435.3
■회사채 순발행	6.3	3.3	10.8	-0.2	2.5	-0.9	0.3	-1.6	..
■CP·단기사채 순발행	9.3	-0.8	7.9	-0.7	15.3	0.6	4.5	-1.5	46.8
■주식발행	0.9	0.1	12.4	3.2	17.3	0.8	3.5	0.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5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기타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비 소폭 증가
(22.4월 +1.2조원 → 5월 +0.4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영향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2.4월 +2.0조원 → 5월 +0.8조원)
- 기타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지속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
(22.4월 -0.9조원 → 5월 -0.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22.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가계대출	32.5	5.0	35.3	-1.6	-0.1	-1.0	1.2	0.4	1,060.6
▪주택담보대출	27.2	3.9	25.3	4.0	8.8	2.1	2.0	0.8	787.6
▪기타대출	5.3	1.1	10.0	-5.5	-9.0	-3.1	-0.9	-0.5	271.6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7월 초순(7.1~7.11일) 금리 하락 & 원/달러 1,300원 돌파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중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한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 인플레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하고, 7월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세가 강화
(7.1일 3.439% → 7.11일 3.324%, -0.12%p)
- 원/달러 환율은 6월 글로벌 금융긴축 강화 우려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증가 기준 1,300원을 일시 돌파하고, 7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1,3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7.1일 1,297.3원 → 7.11일 1,303.9원, +6.6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4	3/4	4/4	2월	3월	4월	5월	6월	7.11일
국고채(3년)	1.45	1.59	1.80	2.24	2.66	2.96	3.03	3.55	3.32
회사채(3년,AA-)	1.97	2.05	2.42	2.86	3.34	3.68	3.81	4.36	4.20
CD(91일)	0.68	1.04	1.29	1.50	1.51	1.72	1.96	2.04	2.12
CP(91일)	0.97	1.18	1.56	1.64	1.66	1.89	2.15	2.34	2.37
원/달러	1,126.1	1,184.0	1,188.8	1,202.3	1,212.1	1,255.9	1,237.2	1,298.4	1,303.9
원/100엔	1,022.1	1,058.2	1,030.2	1,041.5	992.7	970.2	975.6	946.5	95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7.8%, 전월비 +0.1%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6.0%)과 화학제품(-1.1%), 1차금속(-0.4%), 기계장비(-0.4%)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24.3%), 자동차(15.9%) 기타운송장비(15.1%) 등 주력 업종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7.8%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4.7%)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공업(7.9%)과 경공업(7.1%)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6.2%), 자동차(1.8%), 1차금속(1.3%)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자부품(-13.8%)을 비롯해서 반도체(-1.7%), 기타운송장비(-2.3%), 화학제품(-0.3%) 등의 업종들이 감소함에 따라 0.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5.1)는 반도체,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에, 금속가공과 기계장비 등 다수 업종에서 하락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0.6%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도 0.1%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5%로 전월보다 2.9%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폭이 확대(0.2% → 1.3%,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된 반면에, 재고 증가폭이 축소(13.6% → 11.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7%로 전월보다 1.0%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7.5%, 전월비 +1.1%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5.5%)와 운수창고(14.3%), 숙박·음식점(20.5%), 정보통신(9.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4.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7.5% 증가

- 전월비로는 숙박·음식점(4.3%)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도소매(1.2%)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0.5%) 등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운수창고(2.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4%) 등이 증가하면서 1.1%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6.9%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9%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0	2021			2022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3	114.4	112.9	120.4	114.3	123.3	118.6	120.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2	7.6	5.8	6.5	4.7	3.6	3.5	7.7	0.2
제조업 (원지수)	9,489.5	106.4	114.5	113.0	120.6	114.5	123.5	118.7	120.8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2	7.6	5.8	6.5	4.7	3.7	3.6	7.8	0.1
섬 유	129.8	-10.7	5.8	3.9	2.9	3.7	-0.8	-1.1	3.7	-0.3
화 학	845.3	-3.2	7.6	8.7	4.9	0.8	-0.6	-2.6	-1.1	-0.3
철 강	594.9	-6.1	5.7	10.8	1.1	1.1	0.8	-4.5	-0.4	1.3
반도체	1,423.5	22.6	29.4	33.9	33.6	29.2	26.5	34.8	24.3	-1.7
컴퓨터, 주변장치	30.4	-7.9	-1.0	-6.5	-4.3	3.1	8.4	-10.1	6.8	16.7
통신, 방송장비	122.9	-11.6	22.5	20.4	8.0	-14.0	-5.6	-13.5	-12.2	-2.7
의료, 정밀, 광학	226.6	4.7	17.0	14.1	9.5	7.7	4.5	2.8	8.3	4.2
기계, 장비	843.8	3.1	11.9	7.9	7.6	-2.9	-6.3	-12.1	-0.4	6.2
자동차	927.2	-9.5	4.5	-8.9	-4.1	-4.4	-6.3	-2.5	15.9	1.8
조 선	220.1	8.6	-16.9	-22.8	-12.5	-1.9	5.9	11.6	12.7	-3.0
- 중 공 업	-	0.6	8.9	7.6	7.6	5.5	4.6	4.3	7.9	-0.2
- 경 공 업	-	-3.5	1.7	-1.9	1.7	1.0	-0.3	0.0	7.1	1.6
- 제조업ICT	-	11.8	20.2	22.7	21.7	21.1	20.4	24.2	14.7	0.7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6.2	110.9	110.0	116.6	110.3	115.8	115.0	117.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	4.4	3.9	5.5	4.1	3.8	5.0	7.5	1.1
도소매	211.3	-2.6	4.0	3.6	4.2	3.0	2.7	2.5	5.5	1.2
운수및창고	90.3	-14.1	6.4	6.9	10.6	8.2	4.3	8.5	14.3	2.9
숙박및음식점	61.6	-18.4	1.4	-1.5	18.7	17.0	6.1	16.9	20.5	4.3
정보통신	79.9	1.5	5.2	6.8	7.8	6.3	5.7	7.1	9.5	2.1
금융및보험	140.9	14.0	8.5	6.2	3.9	0.1	4.5	3.4	6.6	0.0
부동산	31.8	5.5	0.7	0.1	-0.2	-0.8	-0.9	-0.6	1.7	0.5
전문·과학및기술	71.0	0.0	2.7	0.9	4.2	2.2	1.2	1.1	4.2	0.5
사업시설관리 등	47.7	-9.9	2.3	2.8	4.6	3.6	3.2	3.8	5.0	1.4
교 육	106.0	-4.6	1.7	1.9	1.8	2.7	2.1	1.1	1.9	0.3
보건및사회복지	94.3	1.5	3.3	4.6	4.4	7.0	8.2	8.7	7.9	0.0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32.6	6.9	5.5	19.8	26.7	13.3	24.9	31.9	6.5
협회수리및개인	32.1	-8.2	1.1	-0.4	5.3	-0.5	-3.3	7.6	6.7	-0.4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3.3	2.4	3.7	-0.6	-3.7	-6.6	-5.3	-3.2	1.8
- ICT서비스업	-	4.9	5.9	6.7	7.9	5.4	6.6	9.4	6.9	-0.9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3.4% 증가

-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동반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3.2% → 3.4%)
 -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3개월 만에 둔화(3.0% → 2.4%)
 -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보다 더욱 확대(4.6% → 7.9%)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도 상승(3.1% → 3.3%)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다시 확대(2.3% → 3.4%)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도 감소세가 지속 둔화(-0.7% →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8% → 8.5%)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4.1% → 5.7%)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좀 더 확대된 반면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7.6% → 2.3%)를 비롯해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9.2% → 6.9%)와 교육서비스(4.1% → 3.0%)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증가율이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5.0%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올 들어 처음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6,904	27,273	27,645	27,611	27,369	26,953	27,402	27,754	28,078	28,485
전년동기비	-0.8	1.4	2.1	2.4	3.8	4.4	3.9	3.1	3.2	3.4
농림·어업	3.6	0.9	1.6	2.0	4.6	7.6	4.0	2.5	4.6	7.9
제조업	-1.2	-0.2	-0.8	0.6	1.5	1.5	0.7	2.3	3.0	2.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2.8	2.9	4.2	4.9	4.6	3.3	3.1	3.3
건설업	-0.2	3.7	4.5	1.7	3.8	5.1	3.3	3.1	2.3	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6	-1.9	0.2	1.4	0.1	-1.0	-0.7	-0.2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6.9	8.3	6.3	6.7	8.1	4.2	4.0	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9	3.0	4.1	4.0	5.8	6.1	6.2	5.3	5.0	4.3
실업률 (계절조정, %)	4.0	3.6	3.2	3.4	3.0	3.6	2.7	2.7	2.7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6월 수출 5.4% 증가, 수입 19.4% 증가, 무역적자 25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4% 증가한 577억 달러,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석유제품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철강과 컴퓨터 등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낮아진 데다, 선박류를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 등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 전환(-0.8%)한 데 이어,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20개월 만에 감소(-8.3%)
- 수입도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중간재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5월 32.0% → 6월 19.4%)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117.8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9.4%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9.6%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53.1% 증가한 약 8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5,125 (-5.5)	6,444 (25.7)	1,767 (24.6)	1,732 (18.3)	1771 13.0	540 (20.8)	638 (18.8)	579 (12.9)	615 (21.3)	577 (5.4)
수입	4,676 (-7.1)	6,150 (31.5)	1,724 (39.4)	1,769 (29.5)	1837 23.1	531 (25.2)	636 (27.8)	603 (18.5)	632 (32.0)	602 (19.4)
무역수지	449	294	44	-37	66	9	2	-25	-17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석유제품·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증가, 15대 품목중 8개 품목 감소세

○ 반도체 :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와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서버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24개월

연속 증가세(14개월 연속 100억 달러 달성)

- **자동차** : 친환경차 수출 수요와 수출단가 상승 지속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공급망 불안정성 지속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 지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자동차부품** : 완성차 수출 감소와 함께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중국 일부 지역 봉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이 재차 감소
- **선박류**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발주 감소와 선가 급락 기간에 수주한 물량이 대부분인 가운데 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단가 및 수출 감소('21.6월 3척 → '22.6월 1척)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OLED 중심의 수요 확대에도 LCD 생산 축소와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5개월 만에 감소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여파에도 주요 시장에서의 국산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주요 부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20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과 석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강세 영향에도 중국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소폭 증가(18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글로벌 소싱수요 확대와 원단 등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지연 및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이 9개월 만에 감소
- **석유제품** : 고유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정제마진과 가동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수요 회복 등에 따른 항공유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치를 달성
- **석유화학** :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지연과 일부 품목(합성원료)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높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일반기계** :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공작기계 수요 증가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지연과 중국 일부 지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재차 감소 전환
- **가전** :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수요 지속에도 대러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및 경기 위축, 중국 일부 지역 봉쇄와 미국 주요 항구내 화물 적체 등의 여파로 수출이 9개월 만에 감소
- **컴퓨터** :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북미 지역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업용 SSD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이 16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13.1	24.2	4.9	-0.4	6.8	8.1	-9.7	6.0	18.9	-2.7
자동차부품	-17.3	22.2	-1.5	4.0	-0.6	-1.3	-0.1	-4.9	7.6	-3.8
선박류	-2.0	16.4	22.9	-45.3	-6.5	15.7	-35.7	-16.7	44.8	-36.0
일반기계	-8.9	10.8	9.9	5.5	-3.2	0.3	2.8	-0.2	3.1	-11.7
철 강	-14.5	36.9	47.6	38.1	17.3	39.4	26.7	20.8	26.9	5.4
석유화학	-16.4	54.8	54.2	26.3	6.9	25.6	15.6	7.0	14.1	-0.4
석유제품	-40.6	57.7	113.1	90.7	88.2	74.2	100.6	75.2	107.0	81.7
섬 유	-13.3	14.0	16.6	14.6	-1.7	15.0	8.0	0.0	4.3	-9.2
가 전	0.7	24.0	15.4	13.3	0.1	14.1	7.4	6.1	10.9	-15.5
무선통신기기	-6.4	22.8	11.9	17.3	9.0	8.1	44.4	8.3	8.4	10.6
컴퓨터	57.2	25.3	56.5	41.5	29.5	44.6	33.0	56.4	29.1	9.6
반도체	5.6	29.0	34.6	29.0	13.7	23.8	38.0	15.8	15.0	10.7
디스플레이	-12.2	18.9	5.8	30.5	4.7	39.2	48.4	21.8	0.1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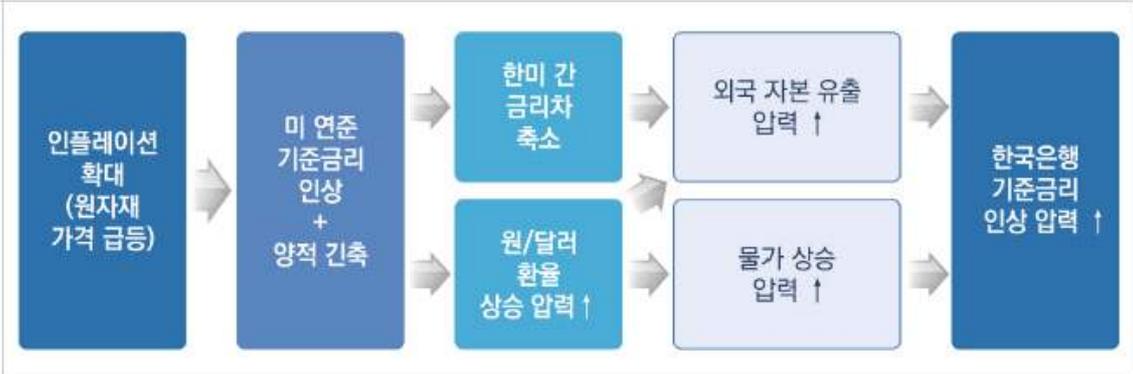
주 :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회예산정책처(2022년 6월)

- 최근 미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을 기준금리를 인상
 - 미 연준은 2022년 6월 기준금리를 0.75~1.0%에서 1.50~1.75%로 인상하고, 향후에도 물가 불안의 지속 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 미 연준의 점도표와 미국 금리 선물거래 등을 고려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해 말 3% 중반, 2023년 말 3% 후반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기준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
 -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미 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등을 통해 자본유출 및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시키는 요인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점검해 볼 필요

〈 미 연준의 긴축기조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연계 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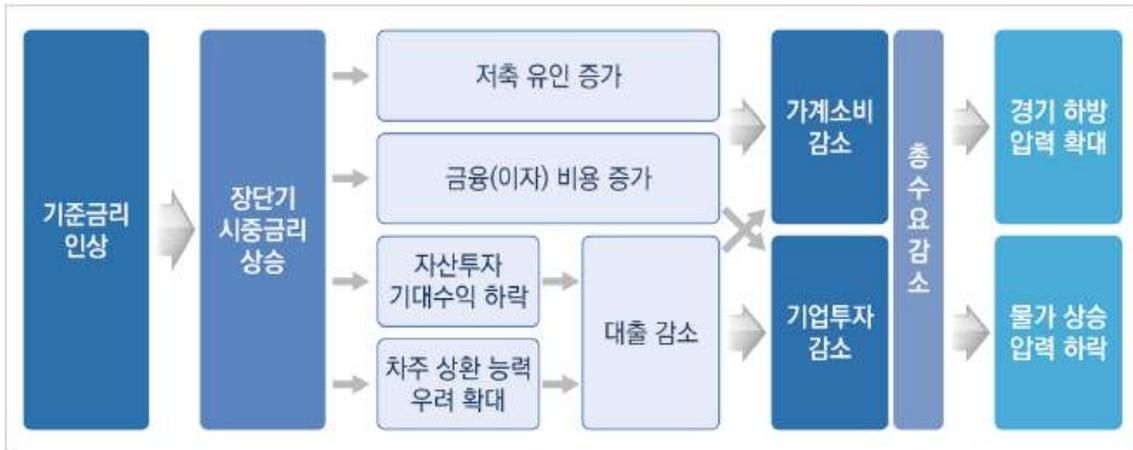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22.1분기 속보치 기준.

□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 최근에 물가 불안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확대되는 상황
 -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2022년 들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1·4·5월에 각각 0.25%p씩, 6월 현재 1.75%)한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2022년 1분기 3.8% 상승에서 5월에 5.4%까지 상승하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
- 국내 기준금리 상승은 단장기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등 금리 전반에 영향에 미치고,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의 즉시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와 장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영향
- 시중금리 상승은 차입 억제와 저축 확대,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을 통해 가계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들도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
- 국내 기준금리 상승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악화될 가능성
-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 채권 등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의 현재가치를 저하시키게 됨에 따라 자산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에 국내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음(-)을 기록하면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엄격해짐을 시사

〈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경제의 연계 플로우 〉



자료: 한국은행. 주: '22.1분기 속보치 기준.

□ 시사점

- 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취약계층의 파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 필요
 - 생산비용 상승, 기업 대출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재무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한계기업 등 기업들의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나아가 한미간 금리차 축소 내지 역전으로 발생 가능한 금융리스크를 점검
 - 한미간 금리차 축소가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금융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자본유출과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 필요
 - 한국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7.11)	(7.12)	(7.13)	(7.14)	(7.15)
 5월 기계수주		 6월 수출입통계  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6월 고용동향	 5월 산업생산(수)	 6월 산업생산  6월 소매판매  6월 고정투자  22.2분기 실질GDP  5월 소매판매(수)  5월 수출입통계  6월 산업생산  6월 소매판매
(7.18)	(7.19)	(7.20)	(7.21)	(7.22)
	 6월 소비자물가(수)	 BOJ 통화정책회의	 6월 무역수지(잠)  ECB 통화정책회의  6월 경기선행지수	 6월 소비자물가  6월 생산자물가
(7.25)	(7.26)	(7.27)	(7.28)	(7.29)
	 7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7.27일)  22.2분기 실질GDP (속 보 치)	 5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6월 내구재수주(잠)  7월 소비자동향조사	 6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체감지수  22.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산업생산(잠)  6월 소매판매(잠)  6월 실업률  7월 소비자물가(예)  22.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개인소비  6월 산업활동동향
(8.1)	(8.2)	(8.3)	(8.4)	(8.5)
 6월 실업률  7월 ISM 제조업지수  7월 수출입통계	 7월 소비자물가	 6월 소매판매  7월 ISM 서비스업지수	 6월 무역수지	 6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7월 고용보고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8.7)</div>  7월 수출입통계